

새(로)발(견)된(古)서(書) ④

玉淵雜記

柳 永 博
(서울大學校 文理大 敎授)

1. 체재(體裁)와 소장자(所藏者)

이 새로 발견된 《玉淵雜記》는 현 학술원(學術院)회장이병도 박사의 소장으로서 박사께서 근년에 소장하신 고서(古書)이다. 이 책은 한장수사본(漢裝手寫本)으로써 가로 14.5cm, 세로 22cm의 아담한 한장본(漢裝本)이다. 모두 5책(冊) 10권으로 저자 미상(未詳)의 이 《玉淵雜記》는 그 내용이 표제(表題)의 雜記라는 뜻 그대로 일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책은 적어도 한·일합방 전후(前後)에 쓰여진 것이라고 추정되며, 미처 저자가 누구인가 밝히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玉淵雜記》권1에 보면 463건(件)의 기사(記事)를 기록하였고, 권 2에는 299건의 기사가 적혀 있다. 이 《玉淵雜記》는 2권 1책으로 제본(製本)되어 있다. 그러므로 《玉淵雜記》제1책에는 모두 762건의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그러면 제1책에 들어 있는 762건의 기사 가운데에서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를 뽑아서 읽어보고 그에 대한 해석과 비판을 하기로 하겠다.

2. 추분(秋分)

지금, 가을 하늘은 마냥 높아가며 따라서 푸르기를 더하고 소슬한 바람이 옷깃을 감돌고 있다. 순환하는 四時節候, 그에 따르는 사람마다 느끼는 생각과 절후에 걸쳐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는 때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다. 《玉淵雜記》에 보이는 절후기사(節候記事), 그중의 가을에 관제되는 것을 먼저 읽어 보기로 하자.

- A. 秋分日日入西方有白雲如羊則宜稻年豐而不多霜
多疾應在來早六月也
- B. 重陽之日飲菊花酒食菊花糕漢唐之遺俗傳來于我國
而近日日本國亦盛行此風也
- C. 菊有六名一曰日精二曰節花三曰周盈四曰傳延年五
曰傳公六曰更生也
- D. 秋分者尙書堯典之宵中星虛以殷仲秋孔安國註曰以
爲宵中秋分之夜虛玄武之中星而以秋分之曰見故以
正仲秋也

높푸른 가을 하늘에 점점이 흘러가는 흰 구름은 그

무한(無限)한 공간(空間)에 마음껏 수놓고 있다. 추분 날은 해가 서쪽으로 질 무렵, 흰 구름이 마치 양떼(羊群) 모양을 하면 그 해는 풍년(豐年)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양절(重陽節)에 국화주(菊花酒)를 마시는 것은 한·당(漢·唐)시대부터 있어 온 것이며 이 유속(遺俗)은 일본에까지 전파되었다 한다. 지금 소슬한 가을바람이 필자의 서재 창변에 서 있는 코스모스를 어루만지듯 스치며 불어가고 그 청초한 꽃잎들은 한들한들 나부끼며 마냥 푸르기만한 가을 하늘을 이고 서 있다.

3. 농업(農業)

우리 나라에 근대 농업이 어떠했다는 그 초기(初期)의 상황을 짐작하게 하는 기사가 《玉淵雜記》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오늘 날 발달된 근대 및 현대의 농업과 특히 육종(育種)의 지식으로 이 《玉淵雜記》에 쓰여져 있는 기사를 읽을 때에는 말할 것도 없이 상식적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한말(韓末)의 시대적 상황에서 본다면 이러한 기사는 당시로서는 참으로 새로운 지식이라고 할만한 것이다.

- A. 馬鈴薯與甘藷俱是一種但有大小形色之別薯與藷音義併同而一名朱薯一名蕃薯一名紅山藥本南洋熱地之所產也
- B. 馬鈴薯與甘藷日本國櫻町天皇之時自清國臺灣及琉球國等地始入于日本國長崎故名之曰琉球芋也
- C. 馬鈴薯與甘藷栽培之法只以腐糞壅芥耜耨則不待糞壤而成熟或墾植之土深耕後以腐肥糞草軟藪而植之且旱風害虫不受其害故兵荒饑饉以充糧食澤利甚廣也
- D. 馬鈴薯與甘藷不要多量之肥料人力得多大之收穫而其貯藏亦不必手功之多煩只混於粗糖乾砂置之乾燥處則足矣
- E. 歐洲諸國初無馬鈴薯之名而西曆一千五百六十五年英國人窩耳他刺禮自北美殖民地得其種子移植於愛蘭此歐洲馬鈴薯蕃殖之始也
- F. 馬鈴薯有紫赤白淡黃淡紅淡赤等數種而紫白者味甘黃肥者味劣也
- G. 馬鈴薯蒔法每年三月下旬揀其方正不腐者小者全體大者二三片縱割其剖面塗以灰田地一尺或二尺距離掘穴深二寸入糞灰雜肥於其中而少置土粉其上植付一塊覆以土然後時時耘草五月中一回施厩肥而七月下旬下以鋤掘土後直時深耕土壤再遷其採收之小塊再次如前法而植付之則十二月頃可獲再收之利也
- H. 我國馬鈴薯宣祖遼考大王壬辰倭亂之後始自日本國輸入遂爲傳聞于國中而始以一條蔓功植萬顆而利甚廣也

위에서 인용한 개의 기사는 모두가 고구마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들은 《玉淵雜記》 제1책에서 뽑아 본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감자와 고구마를 혼돈하고 있다는 것과 그 종자(種子)와 종류를 말하고 그 재배 법과 널리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를 적어 놓았다. 이미 위에서 말했듯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일반화(一般化)된 것에 지나지 않으나, 당시에는 매우 새로운 지식이었을 것을 알 수가 있겠다. 특히 유의해야 할 기사는 G항이다. 즉 <재배의 히스토리>에서 가장 크게 참고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감자와 고구마를 초기에는 다 같은 방법으로 재배하였다는 사실이 들어나 있다.

4. 민속(民俗)

한 나라의 민속(民俗)도 지방(地方)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같은 시대에 살면서 자기 고장 아닌 곳의 민속을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 《玉淵雜記》에 쓰여진 평양(平壤)의 민속을 살펴보기로 하자.

- A. 我國平壤府閭閻家婦女總其頭髮引上于預上而置髮以白布首巾係著其頭以示娼妓之區別也
- B. 我國平壤對內有人種的階級而士族居住外城平民居內城外城所在之士族着冠內城所在之平民着布巾也
- C. 我國平壤府之俗當端午日則勿論男女老少上下貴賤着新裁之衣服而登山婦女發歡娛之狀態爭先鞞韃男子壯勇敢之氣決脚戲之勝負也

먼저 B의 내용은 귀족과 평민의 주거(住居)가 지역적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비단 평양에만 한해서 있었던 것은 아니고 봉건조선의 시대적 상황이었다. 그리고 C의 기사도 유독 평양에서만 있었던 풍습이 아니라, 전국이 모두 다 그러한 것이었다. 그런데 A의 내용만은 평양에 있었던 특별한 풍속으로 여겨진다. 일반의 부녀자들은 모두 머리를 머리(頭上)위로 올리고 흰 수건을 쓰고 다녔다는 것은 이 지방의 특색이었다고 생각한다. 그것도 창기(娼妓)와 스스로 구별하기 위한 표시로 그러했다는 것은 그만큼 평양에는 창기가 일반 부녀자들과 혼돈될 만큼 많았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음을 알겠다. 이 《玉淵雜記》에는 각 지방마다 다른 풍속을 기록하고 있다. 즉 개성(開城)은 「我國開城府之俗自古尚座好神祀而府北松岳山正祀之外有五神祠一曰城隍祠二曰大王祠三曰國師祠四曰奴女祠五曰府女祠也」 옛부터 신사(神祠)를 좋아하여 송악산에 정사(正祠)와 그 밖의 다섯의 신사가 더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평양사람들은 평민들 사이에 사용하는 포건(布巾)이 마치 상제복(喪制服)과 비슷하다(平民所着之布巾類似喪制服……)고 하였다.

그리고 평양 지방의 사람들이 지닌 기질(氣質)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기록이 이 《玉淵雜記》에 수록되어 있다. 즉 「我國平壤府之人氣柔稟懶風山群黃州牧之人票氣愚直蓋因山川之氣也」라 해서 사람의 기질은 지세(地勢)에서 연유한다고 했다.

5. 역사(歷史)

이 《玉淵雜記》에 실린 기사중에서 제일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역사에 관한 것이다.

- A. 我國慶州府邑內鳳凰台下鍾閣所在新羅惠恭王六年庚戌鑄造之鍾重量十二萬斤而實我國唯一之巨鍾極鑄造之巧也
- B. 西漢太史令司馬遷著史記一部書堯舜禹湯之事採用書經書春秋時代之事採用左傳國語書戰國之事採用戰國策書其他諸子百家之事採用諸者百家之書而以顯自己之筆力故支那歷史中史記世稱歷史之父也

A항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이고 B의 기사는 역사의 저술(著述)에 대한 것이다. 먼저 A의 내용은 경주에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무거운 종량(重量)의 종(鍾)이 있으며 그 구조의 정교(精巧)함이 또한 제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신라 혜공왕 6년에 만들었다고 하였다. 그러면 이 범종(梵鍾)은 오늘 날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저 유명한 석굴암(石窟庵)을 신라 경덕왕 10년에 기공(起工)하여 다음 혜공왕 때에 완성을 본 것이라 전하는 그때에 이 종도 이룩된 것이다. 즉 혜공왕 6년이면 서기로는 770년이다. 이 770년이라면 지금부터 꼭 1200년전이 된다. 그러므로 이 종은 이른바 폐불덕사종(廢奉德寺鍾)을 말하는 것이다. 속칭(俗稱) 에밀레종이 그것이다. 그런데 이 《玉淵雜記》의 저자는 그 때까지 봉덕사의 종을 향간에서 에밀레종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봉덕사의 종이라는 것을 몰라 그러했는지 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적어놓지 못했다. 우리 나라에서 최대의 크기를 자랑하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미처 그 이름을 못밝힌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

다음 중국 한(漢)나라의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대한 것이 쓰여져 있는데, 중국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玉淵雜記》의 저자는 딱치는 대로 역사에 관한 지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수록하고 있다.

- A. 詩經所載蕝菲即蔓菁而名曰元修菜宋人巢元修好喫蕝根故得名蒙古國人呼爲沙吉水兒也
- B. 齊桓公專任管仲而霸燕易王專任子之而敗晉武帝平吳以獨斷而克秦苻堅代晉以獨斷而亡蓋事雖同而功則異勿論東西洋國古今一般也
- C. 夏禹以黃帝之玄孫顓頊之孫承虞而王傳世至十七而

歷四百五十八年也

- D. 西漢高帝入咸陽則書曰除秦苛法東漢光武至河北則書曰除莽苛政二漢之興宜哉
- E. 夏禹決江疏河以爲天下之興利而不能使水西流後稷辟土墾草以爲百姓之力農而不能使禾冬生也
- F. 山海經郭景純之註爲經家之羽翼劉義慶世說何氏語林爲史家之廊廡司馬公涑水記聞歐陽公歸田錄并爲君子之雅言也
- G. 平陽君訟浚之所著東醫寶鑑最顯于世而可謂醫書之集大成者也
- H. 秦始皇漢武帝以爲神仙只在東海之東乃至庶幾遇之復至海上望焉六鰲頭戴三神山至則風引而不得泊云以形形色色奇奇怪怪之說欺誦愚主庸人也
- I. 辰韓國有六鄙村一曰關川楊山村二曰突山高墟村三曰嶺山珍支村四曰茂山大樹村五曰金山加利村六曰明活山高耶村而各有村長也

이상에서 읽어 본 바와 같이 역사에 관계된 것이면 무엇이든 써 넣었다. 그중에 한가지만을 비판하기로 하겠다. 즉 G항의 내용이 중국역사가 아닌 우리 나라 역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제 그것을 읽어보면 平陽君訟浚 운운의 기록은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 적고 있다. 平陽君이 아니라 陽平君이 옳으며 이 사람은 이씨조선 선조 때 임진왜란이 지나간 다음 무서운 피질이 만연하여 그 대책에 골몰하던 나머지 허준에게 국왕이 명령하여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저술케 하였던 것이다. 그 리하여 광해군 2년에 25권의 책이 완성되었다. 이 <동

의보감>의 가치는 그후 널리 인식되어 중국과 일본에서도 여러번에 걸쳐서 번각(飜刻)하여 갔다. 그 만큼 유명한 의서(醫書)를 저술한 사람을 잘못 기록한다는 것은 매우 큰 실수라고 보겠다.

6. 용(龍)

우리 인간이 가상으로 만든 동물이 많은 중에서도 정말 실제로 있는 것 같이 흔히 인식되고 느끼는 동물은 아마도 용(龍)이 아닐까 싶다. 이 《玉淵雜記》에는 이용에 대한 재미 있는 기록이 쓰여져 있어 이제 그것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즉 그 내용은

- A. 蛇在大淵中一千年再在山中一千年三在江中一千年四在大海中一千年五在大林中一千年六在大巖中一千年七在名山中一千年八在危崖中一千年九在地中一千年十在險惡處一千年十一在烟瘴中一千年十二在沙石中一千年合一萬二千年蟄在而忍難事行厭事且不害物善修第一道後必爲龍也
- B. 龍有七類一曰魚龍類二曰鱗龍類三曰獸形龍類四曰喙頭龍類五曰鱗龍類六曰恐龍類七曰翼龍類也

먼저 용이 되기 위해서는 뱀이 큰 못(淵)속에서 살기를 천년동안 지내다가 다시 산(山)속에서 천년을 지내고 그 다음에 세번째는 강(江)물 속에서 천년을 지내야 한다. 그리고 네번째로는 큰 바다(大海)에서 천년, 다섯번째는 큰 숲(大林)속에서 천년, 여섯번째는 큰 바

(16面に 繼續)

1970

海外學術雜誌預約拜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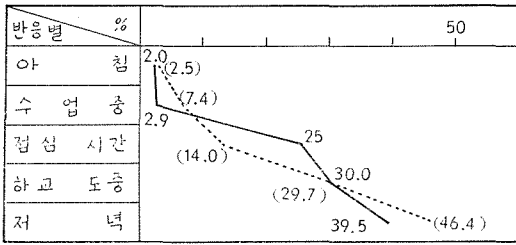
迅速・正確한 情報의 收集과 活用은 現代生活의 에센스입니다.
 弊社는 世界의 坊坊曲曲을 카바하는 굴지의 代理店과 巨大한 出版社를 망라한 海外代理店網을 形成하므로 時時刻刻으로 變化하는 人文・科學・技術情報의 供給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問議하신 即時 案内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쿠폰대행기관
韓國海外出版物株式會社

주소・서울鍾路三街13-5
 전화・73・4262 74・3783
 國際私書函2558号

c. 만화를 보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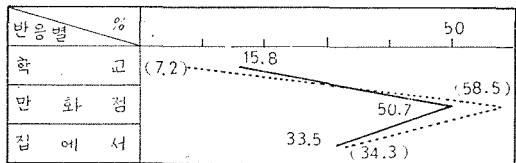
<표 3> 만화를 읽는 시간



수업 시간에 몰래 보는 학생수가 줄어진 대신 점심 시간에 보는 학생수는 11.6퍼센트나 증가 하였다. 이는 도서관이 만화에 대한 열람 봉사를 한데 기인한 것으로 본다.

d. 만화를 보는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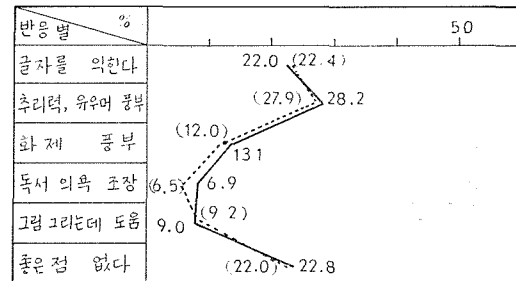
<표 4> 만화를 보는 장소



역시 만화 가게에서 보는 아동수가 줄어들고 학교에서 보는 학생수가 약간 증가한 것도 도서관에서 만화 봉사를 한 결과라고 보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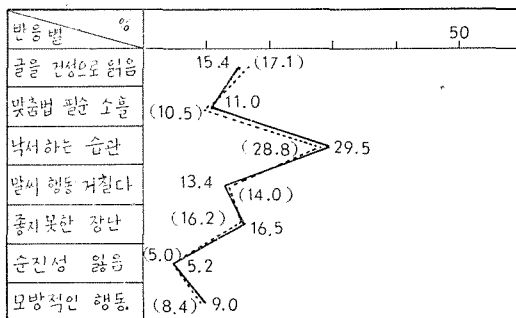
e. 만화를 봄으로써 얻는 이익

<표 5> 만화를 봄으로써 얻는 이익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도서관에서 만화 봉사를 해도 단시일간에는 학생의 태도를 비롯한 「심층(深層)」분야의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볼 수 있겠다.

f. 만화를 봄으로써 오는 해로움 역시 큰 변화를 볼 수 없다.



IV. 結 論

만화가 兒童의 讀書 活動에 미치는 영향과 이의 대책의 하나로 도서관에서의 만화 읽을 위한 閱覽 奉仕 · 叢書 · 指導의 實踐事項을 概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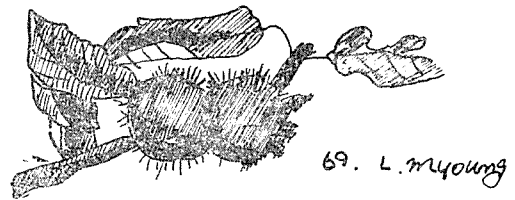
以上에서 살펴 본 바를 個條式으로 매듭을 지어보면, 첫째, 만화는 많은 兒童에 의하여 愛讀되고 있는데, 「語彙의 바람직한 發達의 沮害」를 비롯하여 兒童의 讀書 活動에 많은 惡影響을 끼치고 있다.

둘째로, 만화책도 그림책 등과 더불어 圖書館에서 열람 봉사를 해야 하며, 學年段階에 맞는 讀書 指導를 해야 한다.

세째, 學校 圖書室에서 만화 奉仕를 함에 따라 「수업중에 몰래 만화를 보는 율이 줄어들었으며, 역시 만화 가게에서 보는 사람 수도 줄어들고 學校에서 만화를 보는 兒童數가 增加하였다.

네째, 圖書室에서의 奉仕와 指導를 하여도 만화에 대한 兒童의 態度는 短時日에 改善하기는 어려우며, 長期間의 繼續 努力을 要한다.

다섯째, 圖書室에서의 만화 奉仕는 不良 漫畫로부터 兒童을 保護하고 兒童의 漫畫期를 脫皮하는데 目的이 있을 뿐, 만화의 愛讀을 勸獎하는 데 있지는 않다.



(23面에서 續繼)

위(大岩)속에서 천년, 일곱번째로는 유명한 산(名山)에서 천년, 여덟번째는 위험한 벼랑(危崖)에서 천년, 아홉번째는 망속에서 천년, 그리고 열번째는 말할 수 없이 험악한 곳에서 천년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백만(萬年)을 살아도 아직 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열한번째는 연기(烟瘴)속에서 천년, 또한 열두번째는 모래 자갈 밭에서 천년을 지내야 된다. 그러므로 도합 일만 이천년(一萬二千年)동안을 모두 어려운 일들을 참고 극복해야 비로소 용이 된다고 했다.

이렇게 해서 용이 되는 것이며 그 종류는 모두 일곱 가지가 있다는 것이 B의 내용이다. 아무튼 이 《玉淵雜記》는 종합상식(綜合常識)의 책이라 말할 수 있겠다.